

四象體質醫學과 Allergy 질환

宋 一 炳*

Abstract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Allergy Disease

Song Il-byung

Dep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1. Objects of Research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find methods of treatment on allergy diseases, through summarizing thought on human and etiology,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on diseases proposed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 Methods of Research

It was researched as bibliologically with Dong-mu's chief medical writings such as 『Dongyi Soose Bowon(東醫壽世保元)』,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3. Results and Conclusions

1. Dong mu thought that human is composed of Heart that inside preserve soul and Body that outside respond to Affairs-Objects.

3. The cause of disease is classified into interior cause and exterior cause. Interior cause could be used in cause of disease, exterior cause could be used in prevention of illness, treatment of disease and preservation of health.

4. The treatment of disease proposed in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is that it is to recover 'Essential Qi of Constitution(體質正氣)' by medicine and management of 'Mind-Body(心身)' and that chronic disease is treated chiefly by management but acute disease is treated chiefly by medicine.

5. Allergy disease should be prevented by management of 'Mind-Body(心身)'. but if we suffer from allergy disease, we should treat disease through recovering 'Essential Qi of Constitution(體質正氣)' by both medicine and management of 'Mind-Body(心身)'.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교신저자 : 송일병. 주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사상체질과. Tel) 958-9232 E-mail) ibsong@khmc.or.kr

I. 緒 論

Allergy는 1906년 Clemens von Pirquet가 처음 제창한 용어로 그리스어의 allos (change)와 ergo(action)의 합성어, 즉 생체의 變化된 반응이라는 뜻의 합성어에서 유래되었다¹⁾²⁾.

Allergy질환은 최근 增加경향에 있는데, 1984년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Allergy 환자가 매년 0.25%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1996년에는 전 국민의 20% 즉 국민 5명에 한 사람이 Allergy 환자가 되리라는 예상을 한 바 있고 이는 실제 상황이 되었으며³⁾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1년 서울의 한 병원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 초·중학생의 10%가 Allergy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⁴⁾.

이러한 증가원인은 공기오염, 먼지, 화학제품, 過度한 精神的 스트레스, 인스턴트식품의 過多섭취 등 과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變化와 더불어 여러 가지 오염물질 或은 인공물질의 增加와 관련된다⁵⁾고 보고 있다.

근래에는 Allergy에 대한 西洋醫學的 觀點에서의 접근이 한계점을 드러냄에 따라 韓醫學的 觀點에서의 治療가 시도되고 있으며 또한 體質과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證治醫學에서는 巢元方의 『諸病源候論』에서 漆毒의 감염에 있어 體質의 차이를 인식한 흔적이 있으나⁶⁾ 東武公의 四象人 體質論에서는 각 체질의 특성과

東武公의 인체 인식의 방식을 중심으로 치료할 것을 제시하였다. 證治醫學에서는 Allergy의 原因을 外因(風, 寒, 濕, 熱 等)과 內因(脾虛, 肝旺, 血虛, 血熱 等)으로 나누어 治療한 반면, 四象體質醫學에서는 Allergy疾患에 대해 先天的으로 타고난 네 가지 體質을 바탕으로 각 體質의 知行的 문제(人事의 能·不能, 好善惡惡의 失調, 性情的 失調, 酒色財權의 失調 等)로 인해 體質마다 다른 病理가 나타나게 되며 따라서, 知行的 中庸을 통한 각 體質의 正氣를 보존하는 治療法을 取하게 된다. 本 研究에서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의 조문을 중심으로 東武公의 人間觀과 疾病觀을 정리하고 Allergy疾患을 四象體質醫學的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治療해야하는지에 대한 考察을 함으로써 Allergy疾患에 대한 四象體質醫學的 治療 基準을 밝히고자 한다.

II. 本 論

1. 東武公의 人間觀

1) 一般論의 人間觀

東武公의 疾病觀에 관하여 알아보기 전에 人間觀에 관하여 먼저 알아보겠다. 인체를 구성하는 근원적인 요소는 證治醫學과 四象醫學 모두 五臟이라고 인식하였으나 五臟의 배속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證治醫學에서는 五臟을 모두 동일한 요소로 보고 中央에는 脾를 배속하고 四維에 肝心肺腎을 배속하였다. 그러나 四象醫學에서는 인체를 心·身의 兩面으로 인식하고, 五臟에서 心을 인체의 中央之太極으

1) 정규만: 동의소아과학, 서울, 행림출판사, 1990 ; pp.400-411

2) 의학교육연수원: 가정의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 pp.248-250

3) <http://www.pharmanet.co.kr/dir/index5/555n12.htm>

4) 삼성서울병원 알레르기센터 이상일 교수팀이 지난 1995년 서울등 전국 9개 도시 초중학생 4만2천886명(초등학생 2만5천361명, 중학생 1만7천525명)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별 유병률과 위험인자를 조사한 뒤 이를 6년간 정밀분석해 최근 대한의학회지에 발표한 연구논문 '어린이. 청소년 알레르기 질환에 관한 전국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5) 김선곤 외5인: 알레르기성 비염에 있어 특이적 Ig E측정법의 임상적 의의, 서울, 한이인지. 38(9): pp.1336-1341, 1995

6) 巢元方 諸病源候論 “漆有毒 人有稟性畏毒 但見漆 便中其毒 亦有性者耐者 終日燒者 境不爲害也... 面痒然後...”

로 心의 측면에서 '內存精靈'하며, 肺脾肝腎은 四維之四象으로 身의 측면에서 '外應事物'을 한다고 인식하였다⁷⁾⁸⁾.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면적인 요소는 心이며 心에는 '義理之欲'과 '慾利之欲'의 두 가지 心欲이 있으며⁹⁾. 또한 心의 작용에서 慾이 발현되지 않도록 理를 살필 수 있는 '內存精靈'의 기운을 간직하여야 한다. 외면적인 요소는 身(肺脾肝腎)이며 이의 작용으로 知行이 이루어지고 肺脾肝腎에서 각각 知行을 담당한다¹⁰⁾고 보았다.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東武公은 "慾心으로써 이치를 살피고 몸을 사물보다 앞에 두고, 抑損揚益하며 物을 열고 임무를 이루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제시하였다¹¹⁾.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東武公의 人間觀(1)

事物	以慾察理而 以身先物 抑損揚益 開物成務	開物成務
性命	仁義禮智 忠孝友悌 諸般百善皆出於知行 土農工商 田宅邦國 諸般百用皆出於衣食	外應事物
知行	肺知事務 脾知交遇 肝知黨與 腎知居處 肺行籌策 脾行謀猷 肝行材幹 腎行便宜	
心 (性情)	喜怒哀樂未發而預備者 非恭敬之道乎. -仁義禮智事事盡善 -性理之偏行之而察中焉則求也 喜怒哀樂既發而不強極者 非誠實之德乎 -喜怒哀樂節節必中 -情欲之偏行之而察節焉則得也	內存精靈

2) 差別論의 人間觀

東武公은 一般論의 人間觀과 함께 차별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 그의 초기 저서인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人事에서의 能·不能을 接人과 安身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安身과 接人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性氣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安身의 경우는 "太陽人의 安身은 居處에는 빠르고, 事務에는 빠르지 못하며, 少陽人의 安身은 黨與에는 빠르고, 交遇에는 빠르지 못하며, 太陰人의 安身은 交遇에는 빠르고, 黨與에는 빠르지 못하며, 少陰人의 安身은 事務에는 빠르고, 居處에는 빠르지 못하다¹²⁾." 라고 하였으며, 接人의 경우는 "太陽人의 接人은 交遇에는 능하지만, 黨與에는 능하지 못하며, 少陽人의 接人은 事務에는 능하지만, 居處에는 능하지 못하며, 太陰人의 接人은 居處에는 능하지만, 事務에는 능하지 못하며, 少陰人의 接人은 黨與에는 능하지만, 交遇에는 능하지 못하다¹³⁾"고 제시하고 있으며, 安身과 接人을 좀더 이해하면 安身은 타인과 접촉이 없이 獨居하고 있는 상황이며, 接人은 타인과 접촉하여 있는 상황으로 安身은 接人에 비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人事의 能·不能으로 인해 詐壽侈懶의 欲心과

7) 『東醫壽世保元·四端論』

: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

8)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之變卷第一統』

: "問 居處行身夫婦長幼等事有關疾病乎? 曰人之臟氣 內存精靈 外應事物, 爲酒色所傷者 既傷於酒色 又困於居處行身 所以受病甚酷(B.1.14)."

9)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五統』

: "義理之欲 始雖困免而終於來快 是一屈而又一伸也. 慾利之欲 始亦汨沒而終亦狼狽 再失而又再傷也."

10)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一統』

: "肺知事務 脾知交遇 肝知黨與 腎知居處. 肺行籌策 脾行謀猷 肝行材幹 腎行便宜.(A.1.6)"

1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因之第五統』

: "賢人之力學 以慾察理而 以身先物 抑損揚益 開物成務 七八九十壽者 百福而兼壽也. 老氏之閑靖 畏慾害已 退處窮僻 戒虧保盈 遺世獨立 一百零壽者 一福而高壽也."

1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二統』

: "太陽之安身 點於居處而不點於事務, 少陰之安身 點於事務而不點於居處. 少陽之安身 點於黨與而不點於交遇, 太陰之安身 點於交遇而不點於黨與.(A.2.4.)"

1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三統』

: "太陽之接人 能於交遇而不能於黨與. 少陰之接人 能於黨與而不能於交遇. 少陽之接人 能於事務而不能於居處. 太陰之接人 能於居處而不能於事務.(A.2.8)"

驕誦傲侮의 放心이 생기며 이로 인해 酒色財權에 빠지게 되고 偏小之臟이 손상되어 질병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欲心과 放心을 막아야 질병의 발생을 막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知命'하고 '盡性'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894년의 『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에 이르면 接人에서의 能·不能만이 제시되고 安身에서의 人事의 能·不能은 없어진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제시된 差別의 人間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東武公의 人間觀(2)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性氣		恒欲進而不欲退	恒欲舉而不欲措	恒欲靜而不欲動	恒欲處而不欲出
↓					
安身	人事	點於居處而不點於事務	點於事務而不點於居處	點於交遇而不點於黨與	點於黨與而不點於交遇
	欲心	忿懼之心 詐於居處	憂患之心 懶於黨與	恐懼之心 侈於交遇	好樂之心 奮於事務
接人	人事	能於交遇而不能於黨與	能於事務而不能於居處	能於居處而不能於事務	能於黨與而不能於交遇
	放心	驕於交遇 放縱之過	傲於事務 自私之過	侮於居處 物欲之過	誦於黨與 安逸之過
↓					
酒色財權		爲人權怠 必嗜酒食	爲人嬌奢 必耽侈色	爲人貪慾 必惑貨財	爲人偏急 必擅權寵

II. 疾病觀

1. 病因

東武公은 인간을 心身の 兩面에서 인식하였다. 따라서 病因도 心身の 兩面에서 제시하였다. 身에서의 病因은 위의 差別의 人間觀에서 제시한 人事의 能·不能으로 인한 酒色財權을 病因으로 제시하였으며, 心の 측면에서는 心氣의 短促을 病因으로 제시하였다. 즉 酒色財權과 心氣의 短促 두 가지가 각 체질의 偏小之臟을 손상하여 질병을 유발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東武公의 病因觀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身	安身	點於居處而不點於事務 詐於居處	點於事務而不點於居處 懶於黨與	點於交遇而不點於黨與 侈於交遇	點於黨與而不點於交遇 奮於事務
	接人	能於交遇而不能於黨與 驕於交遇	能於事務而不能於居處 傲於事務	能於居處而不能於事務 侮於居處	能於黨與而不能於交遇 誦於黨與
↓					
酒色財權		必嗜酒食	必耽侈色	必惑貨財	必擅權寵
↓					
偏小之臟을 損傷					
↑					
心	怠慢	心氣短促			

2. 病症 分類

東武公의 病症 分類方式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發病 原因에 따른 분류이며 다른 하나는 命脈實數, 體質正氣, 生息 充補之道로 표현되는 각 체질 偏小之臟의 本常之氣가 남아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病症을 분류하는 것이다. 각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發病 原因에 따른 病症 分類

發病 原因에 따른 病症의 분류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주로 보이는 것으로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一統』에서 보이는 내용으로 "피로와 虛損은 荒涼으로 인한 병이며, 치거나 넘어져 손상을 입은 것은 湧렬함으로 인해 생긴 병이다. 積聚와 內癰은 번거럽고 답답함으로 생긴 병이며, 癩癧이나 狂病은 착란으로 인한 병이다. 기침과 천식은 교만과 사치로 인한 병이고, 음식이나 더위로 손상입은 것은 게으름로 인한 병이다. 中風은 치우치고 급함으로 인한 병이고, 眼病이나 코가 막히는 것은 탐욕으로 인한 병이다."라고¹⁴⁾ 제시한 것인데, 荒涼·關茸·煩懣·錯亂으로 인한 病症은 외적인 身의 知行에서 유

발된 것이며, 嬌奢·懶怠·偏急·貪慾으로 인한 病症은 내적인 心의 心慾으로 인한 病症이다. 그리고 내적인 心에서의 요인은 減壽要因으로 이는 적극적인 질병의 치료에 활용하였으며 外적인 身에서의 요인은 得壽要因으로 이는 질병예방과 양생에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내적인 心에서의 요인을 減壽要因으로 外적인 身에서의 요인을 得壽要因으로 인식하였다. 다른 한가지는 性氣에 의해 유발된 病症과 情慾에 의해 유발된 病症으로 구별하는 것으로 性氣에 의한 病症은 완만한 久病의 양상을 보이거나 病症의 치료는 어려우며, 情慾에 의한 病症은 급성의 新病의 양상을 보이거나 그 치료는 비교적 쉽다¹⁵⁾고 인식하였다.

표 4. 東武公의 病症分類(1)

		原因	病症
病變之第一統	身 (외적요인) - 得壽要因	荒涼之疾	疲德虛耗
		闖茸之疾	打撲損傷
		煩懣之疾	積聚內癰
		錯亂之疾	癲癘狂病
	心 (내적요인) - 減壽要因	嬌奢之疾	咳嗽喘端
		懶怠之疾	傷食傷暑
		偏急之疾	中風
		貪慾之疾	眼病鼻塞
病變之第三統	性氣	久病病症重者 性氣緩傷之病 緩傷者難治而歲月亦延	
	情慾	新病病症重者 情慾暴傷之病 暴傷者則易治而時刻亦急	

2) 命脈實數에 따른 病症 分類

東武公은 病症을 치료할 때에 각 체질 偏小之臟의 本常之氣가 남아있는 정도를 파악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病症을 분류하여 病

症의 단계를 파악하는 경우에도 發病 原因보다는 偏小之臟의 本常之氣가 남아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을 위주로 분류하였다. 우선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偏小之臟의 本常之氣를 命脈實數로 제시하고¹⁶⁾, 이것이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건강 상태와 질병 상태로 분류하고 각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는 命脈實數의 개념은 없어지고 正氣와 邪氣의 관계에 따라 病症을 분류하고 적합한 치료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질병분류(2): 四象人의 體質的 正氣中心의 病證分類

版本	분류기준	疾病分類	疾病특성	治療
草本卷	命脈實數 (生息充補之道)	外感	表氣外虧·輕症	不須言藥
		內傷	裏氣內損·重症	勿藥有喜 調理先務 醫藥次第
		牢獄	其病如入獄·危症	非藥不支 醫藥先務 調理次第
		危傾	其命逐危境·凶證	不當論藥
甲午本	少陰人 病證	少陰病	以邪犯正之病	不可不急用藥
		陽明病		
		太陰病 陰毒證	正邪相傾之病	不可不預用藥
		太陽病 厥陰證		
辛丑本	少陽人 病證	太陰病 黃疸證	正邪壅錮之病	不可不大用藥
		太陽病 胃家實證		
辛丑本	少陽人 病證	中風	受病太重 故 治法不可期必	調養爲主 服藥次之
		吐血	受病猶輕 故 治法可以期必	調養爲主 服藥次之
		嘔吐·腹痛 食滯痞滿	服藥調養則 其病易愈	

14)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一統』
: “疲德虛耗 荒涼之疾, 打撲損傷 闖茸之疾, 積聚內癰 煩懣之疾, 癲癘狂病 錯亂之疾, 咳嗽喘端 嬌奢之疾, 傷食傷暑 懶怠之疾, 中風 偏急之疾, 眼病鼻塞 貪慾之疾.”

1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三統』
: “久病病症重者 性氣緩傷之病也, 新病病症重者 情慾暴傷之病. 暴傷者則易治而時刻亦急. 緩傷者難治而歲月亦延. 久病命脈弱者易生 新病命脈弱者難生.”

1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一統』
: “太陽人肝臟十分圖全而與肺相敵者 極完境人也. 一半虧缺 而與肺讓倍者 極壞境人也. 過此則死. 以此推之 太陽人肝臟部一半爲命脈實數 他臟做此.”

3. 治療

東武公이 제시한 치료 방식은 醫藥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 방식과 調養을 통한 완만한 치료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醫藥과 調養을 통한 치료는 기존의 證治醫學에서의 '扶正祛邪'와는 달리 치료를 통해서 각 체질의 體質正氣를 회복하고 안정되도록 도와주면¹⁷⁾ 인체의 자율성으로 질병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醫藥을 사용함에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臟氣와 사용할 藥氣를 잘 비교하여 藥氣가 臟氣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만 醫藥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으며¹⁸⁾ 19) 臟氣가 고갈된 경우는 '難治'이므로 병을 치료하여도 오히려 악화만 된다²⁰⁾고 인식하였다. 또한 醫藥과 調養의 治療方式에서 醫藥을 통한 적극적인 治療方式은 '武法'으로 인식하고, 調養을 통한 완만한 治療方式은 '文法'으로 인식하였으며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치료할 것을 강조하였다²¹⁾. 두 治療方式의 사용은 病症의 단계에 따라 사용 방식에 차이를 보이는데, 內傷의 단계에서는 調養을 위주로 하며 醫藥을 병용하고, 牢獄의 단계에서는 醫藥을 위주로 하여 調養을 병행하여 치료할 것을 제시하였다²²⁾. 그리고 병의 단계가 危症에 이룰수록 調養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調養이 병행되

지 않는 補藥藥物만의 치료는 '補病富病'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²³⁾.

Ⅲ. 四象醫學에서 본 Allergy 질환

西洋醫學에서 인식한 Allergy 질환은 과민성 면역 반응으로 동일한 증상이 자주 재발하면서 만성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²⁴⁾, 四象醫學에서 인식한 Allergy 질환을 살펴보면, Allergy 질환은 일반적으로 發病의 특성상 과민성 질환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發病 初期의 양상에서는 '情慾에 의한 暴傷之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發病 初期에 病症 治療나 情慾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暴傷之病이 緩傷之病이라는 久病의 양상으로 변하여 습관성 질환으로 변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Allergy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는 初期에는 暴傷之病의 치료 개념인 '服藥을 爲主로 하며 調養을 次之'하는 치료 방식이 필요하고, 久病의 양상으로 변하여 습관성 질환이 되면 '調養을 爲主로 하고 服藥을 次之'하는 치료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四象醫學에서의 Allergy 질환의 치료는 服藥과 調養의 '文武並用'의 치료를 통하여 四象人의 體質正氣를 확보하고 偏小之臟의 本常之氣

- 17)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 “蓼苓杞菊等藥性淡平 有病可以久服常服而 亦有時間斷以安臟本常之氣.”
- 18)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 “臟氣主也 藥氣客也 臟氣三倍而藥氣一倍則其病即遁也 臟氣二倍而藥氣一倍則藥力易達也 臟氣與藥氣相敵則勝負之數未可知也 臟氣與藥氣對敵則倒戈之變可立待也 所以少陽之水銀不可以輕用 少陰之蓼附不可以屢用.”
- 19)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 “塗壁之客土與主土不成完合則數三月後客土與主土俱落 補臟之藥氣與臟氣不成完合則一半年後藥氣與臟氣俱渴 故較補輕粉參茸等藥不可屢用 用之者一二年間尤極攝身 期于藥氣與臟氣完合 然後保無虞.”
- 20)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五統』
: “太陽病以太陽藥投之而病勢益劇有加無減者 臟氣已渴而其病不治 太陰少陽少陰倣此”
- 2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五統』
: “少陽戒暴哀之傷而有時服淡平潤藥 少陰人戒暴喜之傷 有時服淡平溫藥則 文武並用長久之術或者近似也, 若少陽人不戒哀心 少陰人不戒喜心而不服藥則 譬如秦始皇漢光武 窮法黷武財用日耗而四海益亂.”
- 2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三統』
: “牢獄之病 醫藥先務也 調理次第也, 內傷之病 調理先務也 醫藥次第也.”
- 2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 “孟子曰 君未嚮道志仁而求爲之強戰地 是補藥富傑也. 孟子教以警諭之曰 病人未清淨思慮 嚴禁酒色而求爲常法補藥益氣 是補病富病也.”
- 24) 홍창의편: 소아과학, 대한교과서(주), 서울, 2002

를 편안하게 하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인체에서 스스로 抗病力이 생겨 Allergy가 치유된다고 보고 있다.

IV. 結 論

1. 東武公의 人間觀은 '內存精靈 外應事物'의 관점에서, 인간을 心身의 兩面으로 설명하고 있다.

2. 儒學的 배경에서 제시한 인간의 삶의 목표는 心·身을 수양하여 '修己'를 완성하고, 이를 사회적 환경으로 확장하여 '開物成務'의 '治人'을 이루는 것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다.

3. 질병의 주요 發病要因은 내면적인 心慾에서의 減壽要因으로 설명되어지고, 疾病의 治療와 豫防·養生을 위한 要因은 외면적인 知行에서의 得壽要因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4. 치료 원칙은 醫藥인 '武法'와 調養의 '文法'을 並用하여야 하며, 暴傷之病은 '服藥을 爲主로 하며 調養을 次之'하는' 방식으로, 緩傷之病은 '調養을 爲主로 하고 服藥을 次之'하는 방식으로 각 體質臟氣의 本常之氣를 편안히 하는 것이다.

5. 따라서 Allergy질환은 心, 身, 사회적 환경(事物)에서의 調養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해야 하며, 發病되어 病證이 형성되면 醫藥과 調理를 병행하여 四象人의 體質的 正氣를 확보하고 Allergy를 管理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다.

參 考 文 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慶熙大學敎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刊行). 서울. 한문화사. 2000
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慶熙大學敎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刊行). 서울. 한문화사. 2000
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1901年版 影印本, 서울, 대성문화사, 1998
4.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1.
5. 홍창의외. 소아과학. 서울, 대한교과서(주), 2002
6. 정규만. 동의소아과학, 서울, 행림출판, 1990 : 400-411
7. 醫學敎育연수원. 가정의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 248-250
8. <http://www.pharmanet.co.kr/dir/index5/555n12.htm>
9. 김선곤 외 5인. 알레르기성 비염에 있어 특이적 Ig E측정법의 臨床的 的의, 서울, 한이인지, 38(9):1336-1341, 1995
10. 대한알레르기학회. 4천만의 알레르기, 서울 소화도서출판, 1993 : 1-8, 11-14
11. 문희주외. 기본면역학, 서울 대학서림, 1992 : 133-137